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용우

문화의 건강한 진화를 위하여

핸드폰은 사람들을 매우 바쁘게 하지만 그 정도의 번거로움 때문에 핸드폰이 가져다주는 '정보 황홀경'을 포기할 사람은 없다. 냉장고의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효과를 가져오지만 우리는 냉장고가 선사하는 서늘하고 시원한 맛의 환상을 포기하지 못한다. 자동차의 공해는 더욱 결정적이다. 그렇다고 누가 예전처럼 말을 타거나 걸어다니겠는가?

인간은 기계문명을 선택하면서 유기적 삶과 멀어져 갔다. 평화보다는 매력적 고통을 선택한 것이다. 즉 문명은 인간에게 삶의 평화보다는 매력을 선사하였으며, 기계문명이 가져다준 온갖 편이성들은 삶을 매력 덩어리로 보이게 하였다. 게다가 문명의 속성인 집단주의는 숙명적으로 도시를 탄생시켰고, 과거 전원적이고 친환경적인 것들로부터 인간을 격리시키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그것이 문명의 짓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재앙임을 잘 알고 있다.

텔레비전은 반세기 이상 활자문화, 독서문화를 타격하다가 정보를 무한대로 확장시킨 인터넷에 의하여 거꾸로 타격 당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황제는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이 아니라 실시간 인간의 두뇌를 빠르게 확장시키는 온갖 정보매체이다. 텔레비전을 24시간 켜 놓아야 심리적 위안감을 갖던 인간들은 이제 텔레비전 대신 인터넷을 하루 종일 켜 놓고 정보 황홀경을 탐닉한다. 그들이 훨씬 재미있고 현실적이며,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명은 흡사 대중문화의 속성과 같아서 과거 시대의 우상을 가차없이 청소해버린 뒤 새로운 우상을 탄생시키고, 신앙처럼 숭배한다.

문명은 그런 것이다. 희랍시대에 문자가 처음 등장하자 문자가 인간의 기억력을 망칠 것이라며 문자 사용을 적극 반대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플라톤이다. 그러나 플라톤도 결국 나중에 문자로 제자를 교육하였고, 문자가 역사를 보관하는 기발한 장치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명예나 긍지, 민족애는 참 소중한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는 이를테면 명예나 긍지, 민족의 뿌리 같은 것이라서 그것이 말살 당하는 일에는 누구나 분노한다. 그런데 그 문화가 불박이처럼 화석화되거나 천 년만 년 변함없이 돌덩이가 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문화가 민족의 긍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자주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단 한 명이 찾아오던 말든 그 존재가치는 지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독립기념관에 관객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흥분하는가.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역사적, 민족적으로 중요한 장소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사람을 위한 장소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장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의 미래지형도와 그 생생한 가치를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을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꾸밀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장소를 과거의 독트린에 가두어 지키려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곳을 화석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건강하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소부터 먼저 살리고 더 재미있게 역사공부를 시킬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나 기타 국가 차원의 대형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부산, 대구, 인천 등에도 바로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이념적 건물을 짓고, 쟁취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념적 민주주의의 성지를 만들어낸다면 살아 있는 생생한 문화의 생기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칫 사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는 과거의 향수가 아니다. 이 착각이 불러오는 의식의 참사가 문화를 화석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적 명분을 위한 민족주의는 문화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 세계적 사고를 반민족주의, 반지역주의 쯤으로 인식한다면 문화는 가망성이 없다. 가령 광주가 세계 문화의 중심도시가 되려면 광주사람들이 먼저 토호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다.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삼성광주전자 물량 해외이전 뭘 의미하나

삼성광주전자가 내년부터 연간 생산물량의 30%를 해외로 이전키로 했다. 이 같은 갑작스런 결정은 당장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끈임 없이 나돌던 가전제품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삼성광주전자는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내년부터 생산물량을 올해보다 30% 낮추는 동시에 감소물량은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키로 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생산물량을 각각 30%, 15% 줄이고 청소기는 저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해외법인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삼성광주전자는 이번 일부 물량의 해외이전에 대해 "물량 감소가 생산능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매출 4조 원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물량의 해외이전은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하다. 협력업체들은 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물량 증대에 따른 시설과 인력 증대를 꾸준히 해 온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그 파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량 감소가 이번 한번으로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해외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삼성광주전자의 점진적인 해외이전은 설득력이 있다.

삼성광주전자의 해외이전은 막아야 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는 이번 일부 물량의 해외이전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삼성광주전자가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전단지, 학교 앞까지 침입했다니

명함형 성매매 광고 전단지가 광주시내 학교 앞까지 버젓이 뿌려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상무지구 등 주요 유흥가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에 따라 자취를 감춘 듯 보였으나 최근 단속망을 피해 아파트 인근 상가와 주택가 등으로 이동하면서 학교 주변, 즉 '스쿨 존(School Zone)'까지 침입한 것이다.

본보가 지난 14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찾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성매매 광고 전단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고 한다. 학교 앞 횡단보도와 주변의 주택가 등지에 여성의 나체 사진이 실린 전단지가 곳곳에 뿌려져 있었다니 말이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가 낯설지 않은 듯 그냥 지나쳤지만, 일부 학생들은 주워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서로 던지며 장난까지 치더라는 것이다.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일면이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성매매 전단지 살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의 단속이 광범위하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경찰의 단속이 주로 상무지구 일대에 집중된 탓에 단속이 없는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학교 주변으로까지 퍼졌다는 얘기다. 소위 '풍선효과'인 셈이다.

따라서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동안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경찰의 단속 영역을 늘리는 게 최선책이다. 실제로 상무지구 등 주요 유흥가에 전단지가 자취를 감춘 것이 이를 입증하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어른들의 그릇된 성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다. 성매매라는 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는 게 아닌가. 학생들의 성범죄 급증 요인도 결과적으로 어른들의 '못된 짓' 때문이다. 달리 탓할 일이 아니다.

의료 칼럼

이문기

황반변성 안질환 조기 치료가 중요

무병장수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본인의 노력이 더해질 때에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병이 진행된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을 사소한 현상쯤으로 받아들여 질병을 방치하는 안일함에서 비롯된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안과 질환은 일반적인 노안과 증상이 유사해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황반변성이라는 안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

황반변성이란 눈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신생혈관에 의해 황반이 손상돼 시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병이다. 노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지방, 고열량의 식습관, 흡연, 비만, 자외선 과다 노출 등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로 60대 이상에서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더불어 3대 실명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황반변성은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탓에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2~3년 내에도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도 약간의 수고만 더해지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암슬러 격자'가 스스로 황반변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가진단법이 된다. 이 테스트는 밝은 빛 아래에서 모눈종이나 바둑판 무늬가 새겨진 종이를 눈앞 30㎝ 정도의 거리에 둔 뒤 한쪽 눈씩 가리고 가운데 점에 초점을 고정하면서 황반변성을 체크해보는 방법이다. 선이 곧게 보이지 않거나 작은 네모 칸이 일정한 크기로 보이지 않는 경우, 4개의 모서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 비어 있거나 뒤틀려 보이거나 희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선이 물결 모양으로 휘어져 보이는 경우는 황반변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진단 결과 이와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진을 받아야 한다. 안과에서는 눈의 CT 라고 불리는 OCT와 형광안저촬영 등으로 황반변성 발생 유무와 진행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황반변성 중에서도 눈 안에 약한 혈관들이 새로 자라나 출혈 등을 일으킨 습성황반변성으로 진단될 경우 레이저 치료나 광역학 요법, 루센티스라고 불리는 눈 속 주사 시술 등이 시행된다. 그 중에서도 루센티스는 가는 바늘을 통해 나쁜 혈관들이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을 직접 놓는 방법으로 통상 한 달에 한차례씩 시술한다. 레이저나 광역학 요법과는 다르게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 유지뿐만 아니라 시력 회복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치료 시기를 이미 놓친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실명의 공포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또 건강한 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푸른안과의원 원장〉

기고

신우식

오세훈 시장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일면식도 없는 제가 이렇게 공개편지를 띄우는 것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 지역에도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항의,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의회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을 일부 진보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매체들에서는 '의회 경시', '독재 행정' 운운하며 맹비난하더군요. 하지만 시장님은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계기로 더 큰 포퓰리즘 공약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밀리면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수 있겠느냐"며 작금의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시장님의 혜안에 감탄을 보냅니다. 실로 오랜만에 강단있고 소신있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를 본 것 같아 가슴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님은 '무상급식=세금급식' 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 정치권·교육계의 무책임한 횡포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무상급식 말고 얼마나 더 긴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간에 점심식사 한 끼 공짜로 먹여서 이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한 끼가 아니라 몇 끼라도 못 먹이겠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무상급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친환경' 이라는 단서를 달고 진일보(?)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어디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오 시장님을 보면서 우리 지역 교육감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선거에서부터 경쟁적으로 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고 그 덕에 진보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더욱더 팔을 걷어붙일 것입니다.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와 견제세력이 없는 현실에서 마치 날개를 단 듯이 무리한 공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 시장님께 감히 간언합니다. 서울시의회와의 무상급식 전면전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 시장님 뒤에는 숨죽여 시장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세력과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일부 사이비 진보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릇된 여론을 만들려는 거짓 세력들로부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교육계에 중요한 문제는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계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대북 강경책이 문제점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그릇된 가치관·안보의식의 결여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러한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히 주입시키는 전교조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지역내 학교 노후 시설 문제도 시급히 고쳐져야 합니다. 학교 도서구입비,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학습권 보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놓아 둔 채 언제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시켜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의 소신행보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교육이 초석이 되어 우리사회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길 기원해봅니다.

〈전남자유교원조합 위원장〉

無等鼓

음주보행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넘기기 어려운 송년 모임이 많은 요즘이다. 와인 몇 잔으로 끝나는 가벼운 파티라고 해도, 귀가할 때 쯤이면 차를 몰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서리게 된다. 더욱이 모임 장소를 집에서 가까운 곳(2㎞ 이내)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럴 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걸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 베스트셀러 '괴짜 경제학'을 써서 학계의 '인디아나 존스'로 불리는 미국 시카고대 스티븐 레빗, 컬럼비아대 스티븐 더브너 교수는 음주보행보다 음주운전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마일(약 1.6㎞)당 음주 보행자가 음주운전자보다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8배나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승자나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감안하더라도, 음주보행은 음주운전보다 5배나 많은 사망사고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페루에서는 음주보행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음주보행을 하다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18~108솔레스(약 7300~4만400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차에 치이는 사고 중 72%가 음주보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통계를 근거로 한 조치다.

우리나라의 음주 폐해도 엄청나다. 해마다 20조990억원(2004년 기준·연세대 보권대학원 연구)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지출된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000억원. 나머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보행사고, 생산성 저하, 크고 작은 질병 등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연말로 갈수록 밤이면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를 잡거나, 길 바닥에 드러누운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엊그제 광주에선 주차장 바닥에서 자다가 동사하는 사고도 있었다. 음주보행자들이다.

무슨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연말이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

자동차 팔때 구매자 인적사항 알아둬야 피해 줄인다

그동안 탔던 승용차를 팔게 됐다.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 갔더니 차 가격을 너무 적게 불러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자를 찾아 그보다 좋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며칠 후 황당한 일이 터졌다. 구매자 쪽에서 자동차 이전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그 상태에서 이 구매자가 교통 사고를 일으켜 범칙금을 부과받아 범칙금 통지서가 나에게로 날라온 게 아닌가. 너무 기막혀서 한참 동안을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그 구매자를 찾아내서야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나중에 경찰관에게 들어보니 구매자가 인명사고라도 낸 후 나몰라라 할 경우 정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차를 팔 때는 산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 놓고 양도증명서를 복사해 가지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아예 미리 차를 산 사람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 두면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하니 차를 팔 경우에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할듯 하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0195〉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경부	2200-612	독자서비스국	2200-551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FAX	227-9500〉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대표 FAX	222-4267〉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